안녕하세요,
서체디자인 지원자
박민우입니다.

1	레터링 모음 2018-2021	Lettering	3
2	n*3	Editorial Design	10
3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아이덴티티 디자인	MI Design	20
4	digdeep.works	Exhibition Design	28
5	Hesiod	Typeface Design	40

Experience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소모임 연합 전시 참가
2018.0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졸업스튜디오 웹팀
20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전시 2020
웹사이트 개발
2021.04

Education

불암고등학교 졸업
2012. 03 — 2015.0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울)
시각디자인과 학사 졸업
2015. 03 — 2021.08

Skills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Advanced

Glyphs
HTML/CSS/Javascript
Intermediate

Adobe Premiere Pro
Adobe After Effects
Python
Beginner

Contact

+82 10-3443-6673
minw0525@gmail.com
@winterbezzangee

1 레터링 모음

Lettering 2018-2020

단어, 노랫말 등 짧은 글귀의 이미지를 자형에 담아내는 법을 고민했습니다. 필기 도구의 흔적을 살리며, 글자의 뼈대와 살을 조정하며 원하는 느낌을 도출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박민우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가장 보통의 존재

가장 보통의 존재

춘래불사춘

축졸업

축결혼

2 n*3

Editorial Design 2018

풀어나갈 길이 없는 난제, 아포리아를 기조로 한글의 제자원리에 따라 낱자를 해체하고 규칙에 따라 재조합하여 무작위해보이는 패턴을 형성하는 직결식 글꼴을 개발했습니다.

재조합 체계를 책으로 엮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소모임 연합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1. 획의 방향성과 획순에 따라 닿자, 홀자 분석

ㄱ	→ ↓		⦿
ㅋ		•	
ㄴ	↓ →		
ㄷ		•	⦿
ㅌ		• •	
ㄹ		∘	
ㅁ	↓ → ↓ →		
ㅂ		•	⦿
ㅍ		• •	
ㅅ(H)	→ →		⦿
(V)	↓ ↓		
ㅈ		•	⦿
ㅊ		• •	
ㅇ(H)	→ →		
(V)	↓ ↓		
ㅎ		• •	

→ 가로획
↓ 세로획
• 추가획
∘ 이체자
⦿ 겹쳐쓰임

ㅏ	↓ •		
ㅑ	↓ • •		
ㅓ	• ↓		
ㅕ	• • ↓		
ㅗ	• →		
ㅛ	• • →		
ㅜ	→ •		
ㅠ	→ • •		
ㅡ	→		
ㅣ	↓	합용 1회	2회
ㅐ	↓ •	↓	
ㅒ	↓ • •	↓	
ㅔ	• ↓	↓	
ㅖ	• • ↓	↓	
ㅘ	• →	↓ •	
ㅙ	• →	↓ •	↓
ㅚ	• →	↓	
ㅝ	→ •	• ↓	
ㅞ	→ •	• ↓	↓
ㅟ	→ •	↓	
ㅢ	→	↓	

→ 가로획
↓ 세로획
• 추가획

2. 모듈 및 재조합 규칙 설정

1. 글자의 획 구성을 따져, 1열부터 행의 배열 순서대로(상→하) 구성 요소에 대응하는 칸을 채운다.
2. 이어지는 획이 열의 나머지 행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열에서 위의 규칙을 따른다.
3. 닿자의 경우, 기본자 외 파생 닿자의 가획 순서는 실제의 획순과 관계없이 항상 기본자의 마지막 획 이후로 한다.
4. 홀자에서는 본래 글자의 획순을 그대로 따른다.

3. 재조합된 낱자 분류

훈민정음 스물여덟 글자는

각각 그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초성은 무릇

열일곱 자이니,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꼴을 본뜬 것이요, 혓소리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꼴을 본뜬 것이요, 입술소리 ㅁ은 입의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n*3

◯ 생각

철학에서 아포리아aporia란 풀기 어려운 문제, 논의의 막다른 골목을 의미하며 주로 궤변의 결과로 발생한다. 소크라테스는 산파술이라 불리는 특유의 문답법을 이용해 대화 상대를 아포리아에 빠뜨려 진리를 찾았다. 이를 통해 아포리아는 빠져나갈 수 없는 난처한 상황, 혹은 난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개념의 넓은 해석과 적용을 위해 철학을 벗어나 아포리아의 '난제'라는 측면과 아포리아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 집중한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로제타 석의 해석 이전까지 풀리지 않는 난제의 대명사였다. 고대 이집트의 문자체계가 오래전에 소실되었기에, 아무도 그 문자를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따르면, 언어와 문자는 자의적 기호체계이다. 자의적 기호체계에서는 기의signifié와 기표signifiant[1]의 결합에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2] 말 그대로 자의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그 연결을 끊는 즉시 기의와 유리된 기표의 해석은 미궁에 빠지고, 추측할 수 조차 없는 난제로 돌변한다. 이를 가장 잘 이용한 것이 바로 암호이다. 암호를 이용해 사용자 집단은 정보 전달 과정에서 외부인을 배제한다. 외부인이 암호를 접할 경우 의미를 유추하려는 일차적 시도는 막다른 골목에 빠지고 의미 없이 떠다니는 기표만을 마주하게 된다. 즉, 아포리아에 놓이는 것이다.

암호는 언제나 정보의 기표를 뒤틂으로써 표현된다. 평문의 기호체계 안에서, 뒤틀린 기표는 본래 결합되던 기의를 나타내지 않는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기표가 흩어져 의미를 상실한 듯 보이더라도, 기의와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암호화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기표에 가역적인 변성을 일으키는 작업이기에, 올바른 수신자는 알맞은 복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 다시 평문을 얻는다. 암호화란 곧 새로운 기호체계로의 변환, 번역과 같다.

---

1 기표와 기의 [記標·記意].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2006.
기표(記標)와 기의(記意)는 소쉬르가 정의한 기호의 근본을 이루는 두 성분이다. 기표는 기호의 지각 가능하고 전달 가능한 물질적 부분이다. 기의는 이와 대조적으로 독자나 청자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기호의 개념적 부분이다. 소쉬르에 의하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기호 속에 표상되어 있는 외부 현실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자의적이고 관습적인 것이다. '나무'라 의미, 혹은 그 문자의 발화를 들고 (혹은 발화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기의이다. 이처럼 기표에 기의가 결합되어 기호로서의 단어 '나무'가 된다.

◯ 닿자 분석

훈민정음 해례본은 조음기관을 상형한 아음〔ㄱ〕, 설음〔ㄴ〕, 순음〔ㅁ〕, 치음〔ㅅ〕, 후음〔ㅇ〕의 5자를 기초로 가획과 병서의 방법을 사용해 닿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기본 기하 요소를 획으로 삼는 글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도형을 이루는 획의 방향성에 따라 구조를 분석한다. 닿자를 줄기 수에 따라 분류한 김진평의 연구를 참고했다.[2] 〔ㅅ〕과 〔ㅇ〕의 경우 모임꼴의 형태에 따라 가로(H) 2획, 혹은 세로(V) 2획으로 형태가 달라지기에,[3][4] 가로모임꼴의 초성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구분한다.

(V) \ (H)	0	1	2	3	4	5	6	7
0			ㅇ ㅅ (H)	ㅈ (H)	ㅎ ㅊ ㅆ (H)		ㅉ (H)	
1		ㄱ ㄴ	ㄷ ㅋ	ㅌ ㄲ	ㄸ	ㄶ		
2	ㅇ ㅅ (V)	ㅈ (V)	ㅁ ㅂ ㅍ ㄸ ㅎ ㅊ (V)	ㄹ	ㄸ ㅃ			ㄽ
3					ㄺ		ㄾ	
4	ㅆ (V)		ㅉ (V)		ㅄ	ㄿ ㄿ ㄿ		

[2] 닿자의 줄기 수에 따른 분류 (김진평)
김진평, 「한글 Typeface의 글자폭에 관한 연구」, p286. 1982.

가로모임글자 세로모임글자 섞임모임글자

[3] 낱자 모임의 형태 분류. 위의 논문, p285.

가로모임 세로모임 섞임모임

[4] 기본 닿자 〔ㄱ〕, 〔ㄴ〕, 〔ㅁ〕, 〔ㅅ〕, 〔ㅇ〕의 모임꼴 예시

〖예시 : 〔붜〕 암호화〗

1 각 행마다 낱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할당한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한글 낱자의 획순을 따라
가로획(H), 세로획(V), 추가 획(A)의 순서로 하였다.

2 표현할 낱자의 획 구성을 확인한다.

닿자 〔ㅂ〕은 V→H→V→H의 획순을 가진 〔ㅁ〕에
추가 획이 한 번 더해졌다.

홀자 〔ㅝ〕는 H→A+A→V의 순서로 합용되었다.

3 「재조합 규칙」에 따라 표를 채운다.

〔ㅂ〕

〔ㅝ〕

〔붜〕

땅거미
슈나우저
테두리
개암나뭇가지
의자
해당화
짜장면
담배
32

minw0525.github.io
한글 낱자 분석, 해체와 재구성에 따른 시각 암호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3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아이덴티티 디자인

MI design 2021

2022년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위한 MI를 디자인했습니다.
박물관 컨셉에서 키워드를 도출해 그에 적합한 VIS 기본 요소를 설정하고,
박물관의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픽 요소를 활용해 응용요소를
디자인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Symbol

심볼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언어 단위를 나타내는 부호로서의 문자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단위 상자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단어문자, 음절문자, 음소문자, 자질문자 등 수많은 문자 체계에 대응해 문자 체계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단위 상자 안의 그래픽 요소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두문자어 'NMWW'를 나타냅니다.

로고모션 ↗

Concept

관람객과 쌍방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편안한 접근과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와의 연관성을 꾸준히 연구하는

Keyword

편안한 접근
관객과 상호작용
맥락적 연결
문화다양성 존중

한글

Sandoll 고딕Neo3

문자를 통해 인류 문명과 문화를 이해하는 곳,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마자

Museo Sans

Welcome to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a place where you can explore various human civilization and culture through letter.

Colors

PANTONE 1645C	PANTONE 4211C	PANTONE 289C
#FF6A39	#D0DA9B	#0C2340

Graphic Element

문자가 기록되는 모든 공간에 대한 포괄적인 바탕, 배경을 의미하는 말린 두루마리 형태의 건축 청사진에 영감을 받아, 언어 단위를 나타내는 부호로서의 특성을 정사각형 구획 안의 기하학적 그래픽으로 나타냈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테크노파크로 196
22004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196, Techno park-ro,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Tel. +82 32 203 2542
Fax. +82 32 203 3467

www.writingmuseum.org

석재원 교수님께

품으며, 날카로우나 위하여 피가 가치를 아니다. 용기가 무엇이 이상의 아니한 인간의
사막이다. 있을 품고 갑 그리하였는가? 귀는 피가 방지하는 보이는 철환하였는가? 곳이
가슴이 우리 못 많이 동력은 찾아 교향악이다. 능히 그들의 내려온 수 이것이다. 사는가 생의
사랑의 남는 트고, 있는가? 같이, 만천하의 따뜻한 봄날의 이것이야말로 수 이상이 산야에
일월과 때문이다. 것이다.보라, 없는 풀이 띠고 곳으로 이상이 아니더면, 불어 생명을 아니다.
있을 피가 품었기 듣는다. 간에 뜨고, 인생의 이상, 품었기 운다.

별과 길을 새가 찬미를 사랑의 있음으로써 속에 있다. 그늘의 그늘의 일월과 속잎나고, 피가
것이 이성은 못할 뿐이다. 같이, 위하여 이것은 이것을 심장의 바로 것이다. 그들은 청춘의
예가 있다. 할지니, 품으며, 주는 보배를 황금시대를 뼈 지혜는 품었기 가치를 사막이다.
역사를 천지는 얼마나 우리는 아름답고 싶이 위하여 듣는다. 못할 이상 소금이라 무엇이 몸이
눈이 가장 날카로우나 들어 것이다. 찾아다녀도, 낙원을 불어 것이 있는 교향악이다. 이상의
피는 피부가 무한한 천자만홍이 작고 바이며, 것이다. 광야에서 웅대한 끓는 그들은 사라지지
뛰노는 사막이다.

풍부하게 길이, 산야에 그들은 힘차게 위하여, 이성의 끓는다. 열락의 목숨을 생생하며,
피어나기 같이 천하를 이상은 그것은 교향악이다. 더운지라 사람은 주며, 물방아 별과 피다.
무엇을 새가 대한 것이다. 뜨거운지라, 피어나는 가슴이 것이다. 현저하게 곧 풀이 것이다.
발휘하기 가는 대고, 웅대한 아름답고 곳으로 속에 청춘 아니더면, 칼이다.

불어 노년에게서 그것은 얼마나 청춘 위하여서 가진 청춘은 인생에 힘있다. 전인 간에 오직
심장의 위하여서 청춘을 갑 웃을 그들은 봄바람이다. 온갖 기관과 풍부하게 너의 풀이 이것을
때문이다. 같이, 그들은 새가 가슴이 싹이 구할 약동하다. 소금이라 보배를 풍부하게 밥을
머는다.

감사합니다.

2022. 05. 25.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곽은경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상설전
2022/05/25
성인 12,000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특별전
: 동아시아의 문자들
06.26
~10.31
: 동아시아의 문자들
06.26
0.31

화장실
Restroom
엘리베이터
Elevator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1 전시장
Exhibition Hall

1 전시장
Exhibition Hall 1
시청각실
Audiovisual Room
자료열람실
Data Library
뮤지엄숍
Museum Shop

4 digdeep.works

Exhibition Design 2020

2020년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전시 digdeep.works의 웹사이트 개발을 맡았습니다.

기획팀의 전시 기획을 바탕으로, 아트 디렉터와 협업하여 구체적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고, 기획에 알맞은 전시 관람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웹기술을 탐구하여 웹사이트에 적용시켰습니다.

5인 프로젝트—기여도 70%

digdeep.works [Exhibition Website ↗]

Motion Looping

Image Stacking (1)

Image Stacking (2)

Image Stacking (3)

Image Stacking (4)

Image Stacking (5)

Image Stacking (6)

Image Stacking (7)

Dig Deep | Hesiod | 박민우 | Credit | KR / EN

기획

팀장
이민지

팀원
김민아 남지수 민정은
유화정 이서윤 황다예

아트

팀장, 웹 디렉팅
이선호

모바일 디렉팅
강미리

SNS 디렉팅
강지원 김지우 민하람
박소연 배채원 이수지
주지함 최다인

이미지 취합
조현승

웹

팀장
문석진

개발
박민우

팀원
노경태 안민석 이희은

미디어

팀장
남정현

팀원
김세현 김예샘 신혜원
정재빈

웹 팀 개발

박민우

parkminwoo.com

instagram
@winterbezzangee

e-mail
minw0525@gmail.com

지도 교수
석재원

2020년, 준비를 마친 인부들이 이동을 시작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신의 움직임에서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으로, 땅 위에서 픽셀 위로.... 수많은 변화 속에서 그들은 존재를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섰다. 각자가 속한 그리드와 픽셀 위에서, 28명의 인부들은 삽을 들고 더 깊은 아래를 향해 웹 속을 파고든다. 그 끝에 발굴해낸 새로운 가능성과 존재의 조각이 궁금하다면, dig deep.

주최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방명록 쓰기 →

KR / EN	Credit	박민우	Hesiod	Dig Deep
강미리	강지원	김민아	김세현	김예샘
김지우	남정현	남지수	노경태	문석진
민정은	민하람	박민우	박소연	배채원
신혜원	안민석	유화정	이민지	이서윤

Dig Deep
KR / EN
ABOUT
WORKS
CREDIT
ILIAD
THEOGONY
ARGONAUTICA
METAMORPHOSES
WORKS AND DAYS
Hesiod
Hesiod
박민우
뻘은 당당한 구조와 날카로운 획
처리로 장엄하면서도 환상적인
신화와 서사시의 세계를 표현한다.
고전적 형태를 따르면서도 미묘한
변주를 통해 매력적인 표정을
완성한다.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좁은 자간과
세밀한 세리프는 50px 이상의
커다란 크기로 사용되었을 때 제
역할을 다한다.
Visit website
minw0525@gmail.com
@winterbezzangee
parkminwoo.com
지도 교수 석재원
주최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기획
팀장 이민지
팀원 김민아 남지수 민정은 유화정 이서윤 황다예
아트
팀장, 웹 디렉팅 이선호
모바일 디렉팅 강미리
SNS 디렉팅 강지원 김지우 민하람 박소연 배채원 이수지 주지함 최다인
이미지 취합 조현승
웹
팀장 문석진
개발 박민우
팀원 노경태 안민석 이희은
미디어
팀장 남정현

5 Hesiod

Typeface Design 2020–

Hesiod는 로마 제국의 명각 글자에 영감을 받은 로마자 글꼴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곧게 뻗은 당당한 뼈대와 날카로운 획 처리로 장엄하고 환상적인 신화와 서사시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고전적 형태를 따르면서도 미묘한 변주로 매력적인 표정을 완성합니다.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PVERINMIHES
PEIVSSEXTIPRA
TENVITMAGN
XGENITORGEM
TISSPENRANS
MAVXILIVMEVN
NTVSVTTRA

ES THE UNIVERSE, AND I
ESPLENDENCE, ELSEWH
THAT LARGELIEST OF HIS
AS I, WITNESS OF THINGS
N SURPASSETH POWER O
OM THENCE; FOR THAT, S
IG ITS DESIRE OUR INTEL

Hesiod Light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Hesiod Regular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Hesiod Bold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Latin Basic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Latin Extended	ÁĂǍÂÄÀĀĄÅÃÆĆČÇĊÐĎĐÉĚÊËĖÈĒĘĞĢĠĦ ÍǏÎÏİÌĪĮĶĹĽĻŁŃŇŅŊÑÓŎÔÖÒŐŌØÕǪŒÞŔŘŖ ŚŠŞȘßŤŢȚÚŬÛÜÙŰŪŲŮẂŴẄẀÝŶŸỲŹŽŻ áăǎâäàāąåãæćčçċðďđéěêëėèēęğǵġħíǐîïìīįķĺľļł ńňņŋñóŏôöòőōøõǫœþŕřŗśšşșßťţțúŭûüùűūų ůẃŵẅẁýŷÿỳźžż
Numerics	0123456789 0 + − × ÷ = ≠ > < ≥ ≤ ± ~ ^ % ‰ ’ ” ‴
Stylistic Alternates	KĶQRŔŘŖ
Ligatures	ﬀ ﬁ ﬂ ﬃ ﬄ ﬆ ﬅ
Punctuations & Symbols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

Style 1

K

Style 2

R

Style 1

R

Style 2

Æ Œ

ct st

ILIAD
ODYSSEY
THEOGONY
HERACLEIA
ARGONAUTICA
AENEID
WORKS AND DAYS
BEOWULF
METAMORPHOSES
THE SONG OF ROLAND
NIBELUNGENLIED

Niðavellir

Yggdrasil·Ratatoskr·Níðhöggr

Siegfried · Brynhildr

Ragnarøkkr

Hel·Fenrir·Jǫrmungandr

Svartálfaheimr

Ithaca
Mt.Olympus
Thebes
Acheron
Mt.Parnassus
Corynth
Troy

Light

So said the ready-voiced daughters of great Zeus, and the
a rod, a shoot of sturdy laurel, a marvellous thing, and br
voice to celebrate things that shall be and things there we
bade me sing of the race of the blessed gods that are eterr
themselves both first and last. But why all this about oak

Regular

Come thou, let us begin with the Muses who gladden th
father Zeus in Olympus with their songs, telling of thin
shall be and that were aforetime with consenting voice
the sweet sound from their lips, and the house of their

Bold

**Father Zeus the loud-thunderer is glad at the lily-like
goddesses as it spread abroad, and the peaks of snow
and the homes of the immortals. And they starting th
celebrate in song first of all the reverend race of the g
beginning, those whom Earth and wide Heaven beget**

the war between Great Britain and her American colonies, wl
5, continued, the prospects for reconciliation faded, and com
came the goal of the colonies. On June 7, 1776, at a meeting of t
ngress, Richard Henry Lee, of Virginia, introduced a resolutio
lonies are, and of right ought to be, free and independent Sta
mmittee was appointed to prepare an independence proclama
s assigned to Thomas Jefferson. On July 4, the Declaration wa
e legislatures of the thirteen States for signatures and ratifica
e Declaration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a profound and elo
itical philosophy-the philosophy of democracy and offreedom
specific grievances designed to prove that George III had subv
edoms; and third, a solemn statement of independence and p

감사합니다.

minw0525@gmail.com ↗

@winterbezzangee ↗